

# “대선주자 검증 활가활부 말라”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간 ‘검증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가 서서히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제집 대표는 1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당이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시기에 공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2월초께 10여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경선방식, 경선시기는 물론 필요하다면 검증 방법 등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대표가 각 후보 진영을 상대로 ‘검증논란 자체’를 촉구하며 경선준비위 주도의 검증 방침을 밝힌 뒤 이를 만의 언급이다. 대선 경쟁에서 ‘3강’을 형성했던 고건

##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에 전권 부여할 듯 조직 윤곽...위원장에 박관용·박희태 물망

전 총리의 중도 하차로 ‘박-이’ 양 후보간 검증 공세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속에서 그 논쟁을 경선준비위로 흡수하려는 지도부의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선준비위 구성도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모습이다. 현재 경선준비위원장의 경우, 강 대표는 당 원로 또는 상임고문단 가운데 중립적 인사로 임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복수의 인사를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의 상임고문으로는 박관용,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 원내 원로로는 5선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하마평에 올랐던 K, H 상임고문은 특정 대선주자측과 가깝다는 이유로 배제했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경선준비위의 중립성을 위해 여성을 포함해 당내외 중립적 인사 10명 내외를 경선준비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을 중 어느 대선주자측에도 줄을 서지 않은 인사를 선발하기 위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빅3’와 원희룡 의원 등 경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캠프 4곳으로부터도 경선준비위 참여 인사들을 1명씩 파견받아 준비위에 참여하도록 했다.

경선준비위는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내달 초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가 ‘경선 틀’을 규정한 당헌과 괴리가 있는 당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후보 검증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각 대선주자간 합의를 전제로 경선방식 및 경선시기 변경 문제 등도 다룰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경제자유도 36위 노동자유도 50%대 헤리티지, 한국 경제자유 지수 조사

미국의 월 스트리트 저널과 헤리티지 재단이 공동 실시한 ‘2007년 세계 경제자유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세계 36위로 나타난 가운데, 기업 자유, 재정 자유, 정부로부터 자유는 8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융자유와 부패로부터 자유, 노동 자유는 50%대로 낮은 수준이라고 16일 배포된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의 경제자유도 68.6%는 아시아 지역에서만 따지면 일본 5위, 대만 6위에 이어 7위이다.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 싱가포르, 후주는 아시아권이면서도 세계 1, 2, 3위의 경제자유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금융·경제 부분의 자유화가 많이 이뤄졌으나 “경제는 계속 재벌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재벌 문제를 지적했다.

▲기업 자유도 83.1% = 사업 시작에 세계 평균 48일 걸리나 한국은 22일 걸리는 등 기업을 시작하고 운영하고 폐업하는 전반적인 자유가 보호되고 있다.

▲재정 자유도 81% = 소득세는 높지만 법인세는 적당한 편(moderate)이다.

▲투자 자유도 70% = 1998년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화가 실질적으로 열렸지만 미디어, 전력, 일부 농업 부문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닫혀있다.

▲노동 자유도 57.7% = 제한적인 고용 규제도 고용과 생산성 성장이 지장받는다. 비규제업의 고용비용이 높고 인력 이동의 해고 비용이 비교적 높다.

▲금융 자유도 50% = 세계에서 급성장하는 경제국가운데 가장 첨단인 정교한 금융체제를 갖춘 나라의 하나이지만, 감독과 투명성이 여전히 불충분하고 금융기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많다.

## 현장과 시각 마트전쟁, 소비자는 행복한가



장필수 경제부 차장

광주지역 유통업계의 시장 팽창전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90년대 중반 향토 유통업체인 빅마트를 필두로 신세계·롯데·현대 등 이른바 백화점 ‘빅3’가 광주에 진출하면서 1라운드 전쟁이 시작된 지 10여년 만이다.

1라운드 전쟁이 물량공세를 통한 영역 넓히기라는 다소 얽전한 다툼이었다면, 이번 2라운드 전쟁은 상대방의 것을 뺏어야만 자신들이 생존할 수 있는 싸움을 건 싸움이라는 점에서 훨씬 치열하다. 이 때문인지 지역 유통업계에선 이번 싸움에서 밀리는 업체는 곧 망한다는 살벌한 얘기도 나온다.

대형 유통업체간 2라운드 전쟁은 지난해 7월 광주신세계가 백화점 옆에 이마트를 개점하면서 이미 시작했다. 광주신세계는 이마트 개점에도 전국 최초의 백화점과 할인점이라는 복합쇼핑몰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본격적인 2라운드 전쟁은 18일 문은 여는 롯데마트 월드점부터라고 할 수 있다.

월드점점은 영업면적이 9천평으로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들 두개 대형 유통업체가 불붙인 2라운드 전쟁은 전국 최초·최대라는 기록에도 의류·잡화물 주 매출로 삼는 백화점과 신선식품 등을 위주로 한 할인점을 통합한 복합 쇼핑몰 시대를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곧 규모의 경제에서 패한 업체는 앞으로 설곳이 더 없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백화점 3곳과 이마트 4개점, 롯데마트 3개점, 빅마트 11개점, 홈플러스 1개점 등 20여개의 대형 유통업체가 영업중이다. 8월에는 이마트 봉선점이 문을 열고 수완지구에 롯데마트가 입점 예정이다. 여기에 홈플러스가 주월점 신축을 추진중이고 옛 광주시청(계림동) 부지도 모 대형 유통업체가 매입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어쨌든 유통업계의 전쟁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은 씁쓸한 표정이다. 구매할 장소와 품목이 늘고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광주는 돈 있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도시란 얘기가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쇼핑장소는 넘쳐난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마냥 즐거워하기보다 주변을 한번 좀 돌아보길 권하고 싶다. 대형 유통업체가 광주에서 열린 매출은 2005년 1조3천378억원이었고 지난해는 11월까지지만 1조2천983억원이다. 그만큼 우리 주변의 동네 슈퍼는 매출이 줄었다.

도와준다고 일부러 동네가게에 갈 필요는 없다. 다만 찾아보면 동네가게에도 값싸고 신선한 제품이 많다는 얘기가. 무작정 차 끌고 백화점이나 할인점에 가기보다 소량의 물품은 집 근처에서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

/bungy@kwangju.co.kr

# “대통령 4년 연임제는 정치선진화 경로”

### ■ 與·시민단체 개헌 광주토론회

### “여권 개편 우선” 반대 의견도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지난 9차례의 헌법 개정은 ‘권력자의, 권력자에 의한, 권력자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이자 개헌 특위 간사인 민 의원은 초·재선의원 모임인 ‘처음처럼’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이 이날 오전 10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의 개헌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국정운영의 책임성, 효율성,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치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이며 ‘87년 체제’라는 역사의 산맥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매년 실시되는 잦은 선거는 국력의 낭비와 국론의 분열, 정치적 혼란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정당으로 하여금 모든 정치행위를 선거에 맞추게 함으로써 정쟁이 일상화,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 민 의원은 “5년 주기의 대선과 4년 주기의 총선이 거의 일치하는 올해 12월의 대선과 내년 4월의 총선이 선거주기를 맞추는 개헌을 할 수 있는 20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모임인 ‘처음처럼’과 ‘참여자치21’은 17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개헌,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년 만에 돌아오는 적기”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한나라당을 겨냥 “개헌 논의 자체를 분쇄하는 것은 국민과 역사를 외면하는 반민주행위이며, 국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개헌 논의의 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지정토론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개헌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기하기

도 했다. 조정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헌 제안은 다소 생뚱맞고 전략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것은 개헌이 아니라 여권의 개편이고 미래에 대한 콘텐트 제시”라고 주장했다.

천성권 광주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5년 단임제가 반드시 문제인가”라고 반문하고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항상 운영이

문제였으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 꼭 일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병문, 강기정, 최재성, 조정성,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처음처럼’은 향후 개헌 논의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국민 토론회를 전국적으로 열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군 2010~2012년 차기전투기 20대 도입

최신에 전투기인 F-15K에 이어 공군의 주요 전력증강사업의 하나로 2010~2012년 차기 전투기 20대가 추가로 도입된다.

김장수 국방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17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 20대를 경쟁입찰에 의한 해외구매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방위사업청이 17일 밝혔다.

차기 전투기는 F-15K급 고성능 다목적 전투기종으로 사업비 2조 3천억 원이 투입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20대가 도입된다.

# 광주 CBS 일본 선교여행

후쿠오카는 해외선교보스-시마네마-다쓰-현류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

**일시** 1차-2007년 2월 4일(월)~7일(목) 2차-2007년 7월 14일(토)~17일(화) 3차-2007년 8월 27일(월)~29일(목)

**모집인원** 60명(선교사 20명)

**합가금액** 1차 55만원 2차-3차 57만원(생수기 포함)

**예약금** 100,000원(예약금수사 환불불가)

**입금계좌** 광주은행 150-137-005137 예금주-기독교 광주방송

**입수문의** 060-375-8500-1

**주최** 광주CBS

**여행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1부) - 10만원
- 여권(2부) - 10만원
- 항공료(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 여행자보험(100만 원 이상)
- 여행자보험(100만 원 이상)
- 여행자보험(100만 원 이상)

**일본VISA**

- 비자신청

**도입내역**

- 항공료(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 기차
- 숙박
- 식사(20인분) 20만원

광주 CBS 일본선교여행

후쿠오카는 해외선교보스-시마네마-다쓰-현류 일본선교를 위한 비전과 도전